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年 12月 日



趙 淳

目 次

東欧圈의 經濟体制의 改革

I. 東欧圈經濟의 特徵	3
II. 東欧諸國의 經濟体制改革의 概觀	7
III. 經濟体制改革의 動機와 原因	14
IV. 体制改革의 理論과 現實	21
(1) 計劃과 管理体制	21
(a) 經濟計劃과 管理의 모델	21
(b) 소 련	23
(c) 기타의 東欧 國家	27
(2) 價格	28
(a) 社会主義의 價格理論 O.Lange 의 理論	28
(b) 東欧諸國의 價格理論과 그 改革의 基調	30
(3) 其 他	35
(a) 企業의 運營	35
(b) 勞動에 對한 物質的誘因	35
(c) 技術進歩	36
(d) 對外貿易	37
V. 將來에 對한 展望	40

I. 東歐권經濟의 特徵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國의 經濟體制의 基本的 特徵은 大體的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1) 共産黨에 의한 經濟權力의 独占 (2) 生産要素의 社會的所有 (3) 中央集權的인 經濟計劃 그 執行이 이것이다. 이들의 特徵은 本稿의 考察의 對象인 經濟體制의 改革과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좀더 敷衍하면 다음과 같다.

(1) 共産黨에 의한 經濟權力의 独占

共産黨은 經濟權力뿐 아니라 모든 權力을 独占하고 있으며 이 理由로 因하여 東歐諸國의 經濟政策에는 그 나름대로의 斷續없는 價值觀에 立脚한 一貫性이 있는 것이다.

(2) 生産要素의 社會的所有

大部分의 自然資源 및 資本은 社會的으로 所有되고 있다. 즉, 土地, 製造業體, 銀行 및 其他의 金融機關 및 對外貿易은 모두 社會的으로 所有되고 있다. 東歐 8個國을 總體的으로 考察해 보면 農土의 92%는 公有되어 있고 國民所得의 95%가 公共部門에 의하여 生産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生産要素의 共有制度는 所得分配에 對하여 중요한 含蓄을 갖는다. 즉 財産所得이란 거의 있을 수 없고 勞動所得이라는 것도 勞動일의 質과 量에 따라서 다르도록 되어 있다. 個人의 消費는 여러가지의 公有財 및 國家所有의 서비스에 의하여 補完되고 있는 것이다.

(3) 中央集權的 經濟計劃

東歐諸國에 있어서는 價格에 의한 資源의 按配는 거의 없고 그 대신 國家計劃委員會(State Planning Commission)이 樹立하는 經濟計劃이 資源의 按配를 담당하고 있다. 이 制度에 있어서의 最大의 弱點은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와는 달리, 價格이라는 機會費用의 基準이 쓰이지 않는 까닭에 資源의 使用 내지 按配에 있어서도 機會費用이라는 觀念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어 結局은 資源의 非效率的인 使用을 招來하고 있다는 點이다. 本稿의 考察對象이 되고 있는 經濟體制의 改革도 결국 이 短點을 補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도 無妨할 것이다.

東歐諸國의 經濟는 大戰即後로 부터 50年代의 下半期까지는 거의 全的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特徵을 가진 1930年代에 소련에서 確立되었든 制度를 그대로 模倣한 制度下에서 運營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1년에는 유고스라비아의 經濟體制改革이 있었고 1956년에는 소련의 第20次 共産黨大會에서 「社會主義達成의 道程」이 各國의 事情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原則이 確認된 이후로, 經濟思想에는 많은 새로운 觀點이 나왔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前에 본 바와 같은 正統的인 劃一性도 漸漸緩和됨에 이른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에 있어서는 東歐諸國의 經濟體制는 다음의 세가지 種類로 大別할 수 있을 정도로 體制의 變化가 顯著하게 되었다.

第一類型은 從前과 다른없는 中央集權的 行政命令的인 體制이다.

잘 알려워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 型의 體制에 있어서는 國家計
劃委員會가 經濟計劃의 頂上에서 모든 生産이나 資源의 使用은 이
計劃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計劃의 執行過程에 있어서
獨立的으로 意思決定을 하는 餘地도 全的으로 存在하지 않는다.
計劃은 모든 生産目標을 物量的으로 表示하며 모든 生産單位는 오
직 그 計劃目標을 達成하는데에만 全力을 傾注하는 것이다. 이
制度의 長點이 있다면 그것은 黨이 決定하는 優先順位에 따라서
總力을 傾注할 수 있다는 點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制度에는
浪費가 많고 너무나 伸縮性이 欠如되어 있다. 純然한 物量的인
計劃目標의 選定과 그 責任量達成의 物量的 評價方法은 效率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度外視한 生産方式의 採択을 結果하였으며 經濟計劃
担当者들의 判斷의 誤謬는 經濟全般에 걸쳐서 여러가지의 隘路와
不足, 過剩등의 現象을 惹起하여 經濟가 高水準으로 發展하면 할수
없게 이 制度의 欠陷이 露呈되게 되었다.

第2類型은 部分的 地方 分權型의 經濟體制이다. 이 制度下에서
도 中央에 의한 計劃과 行政機構등은 그대로 踏襲되고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느정도의 責任과 權限이 下部機關이나 地方機
關에 委讓되고 있어 이들 下部機關들이 中央計劃에 어느정도의 影
響力을 行使할 수 있게 되었다. 中央에 의한 物量的 生産目標의
數가 적어지고 企業의 収益性이 그 企業의 成果를 評價하는데 있
어서 主要指標가 된다는 것이 認定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價格은
아직도 中央에 의하여 決定되지만, 可及的 企業에 대하여 中央이

提供하는 補助의 必要性을 줄이기 위하여 價格은 生産費에 接近하도록 配慮한다. 消費者의 選擇의 自由는 상당한 정도 容認되고 있으나 物量의 需要와 供給을 調整하기 위하여 中央政府는 財貨 및 用設의 價格을 操作하는 事例가 많다.

이 制度는 여러가지 經濟制度의 改革의 結果로 이루어진 것이며 中央集權的 行政命令型보다는 크게 進歩한 形態이지만 價格의 決定은 아직도 中央政府의 恣意的인 要素가 크게 作用하고 있어 價格은 財貨나 用役의 稀貴性의 程度를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

第3類型은 市場補完型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制度에 의하면 中央集權的 計劃에 의한 命令으로 주어진 目標대신에 市場原理에 의하여 經濟의 運行이 이루어지는 制度이다. 原則적으로 市場에서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價格이 決定되지만, 政策當局은 長期的인 經濟의 目標에 따라서 그 價格을 修正하는 수도 있다. 企業은 價格에 의하여 그들의 收益을 極大化하고 消費者의 嗜好가 거의 全般的으로 資源의 按配를 決定한다. 이 制度는 가장 自由制度와 가까운 것으로서, 命令經濟가 가지는 硬直性이 없고 價格制度의 伸縮性을 살릴 수 있는 制度이다.

東歐 9個國中에서 알바니아는 第1類型에, 유고스라비아는 第3類型에 屬한다. 餘他の 諸國들은 大體的으로 1950年代까지는 第1類型에 屬하던 것이 그 後로 여러가지 經濟體制의 改革이 이루어져서 漸々 第2類型으로 移行하게 되었다. 그 中에서도 특히 체코스로바키아와 헝가리아에서는 가장 많은 改革이 이루어졌으며 部

分的으로는 第3類型의 樣相을 띄우는 側面도 있다.

II. 東歐諸國의 經濟體制改革의 概觀

우선 東歐諸國의 經濟體制의 改革의 幅과 深度를 보기 위하여 主要體制改革의 內容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年 度	国 名	經濟體制改革의 內容
1950 ~ 52	유고스라비아	유고스라비아를 除外한 其他國에서는 스탈린의 死後, 소련式인 命令體制를 脫皮하여 第2類型으로 部分的으로 移行하고자 試圖하였으나 유고를 制外하고는 成功을 거두지 못하였음.
1953 ~ 54	헝가리	
1953 ~ 54	체코슬로바키아	
1954 ~ 55	東 獨	
1956	포 랜 드	勞働者協議會 (Workers Council) 合法化, 産業連合會 (Industrial Association) 이 結成되어 經濟行政 및 管理에 參與
1956 ~ 57	포 랜 드	土地의 集團所有의 部分的解体
1957	소 련	各 産業省의 權限을 地方經濟協議會 (Regional Economic Council) 에 移讓
1957 ~ 59	헝가리	經濟計劃의 分權化, 價格決定의 分權化 利潤配分 (中央과 地方사이) 制度의 導入.

年 度	國 名	經濟体制改革의 內容
1958	유고스라비아	經濟計劃의 分權化를 強化, 管理 및 資金調達機構의 分權을 더욱 強化
1960	유고스라비아	關稅의 機能을 擴大 強化
1960	포 랜 드	都壳價格의 大幅的改革
1961	소 련	루블化의 再評價
1961	유고스라비아	디나貨의 平價切下
1961	東 独	各 産業省대신에 國家經濟委員會 (State National Economic Council) 을 創立하여 이것으로 하여금 産業의 管理를 担当하게 함.
1963	포 랜 드	産業管理制度에 있어서의 어느정도의 分權化 認定
1963	항 가 리	計劃 및 管理의 分權化
1963	루 마 니 아	生産者價格 (都壳價格) 의 改革
1963	東 独	[新經濟計劃 및 管理制度指標] 採択, 이로 因하여 産業連合會에 相當한 權限이 委讓되었다.
1963	소 련	貯蓄銀行을 國家銀行 (State Bank) 로 代替함.
1964	항 가 리	各産業에 資本使用料 (즉利子率) 를 課하기로 함.

年 度	国 名	經濟体制改革의 内容
1964	포 랜 드	勞働에 대하여 物質的 誘因을 賦与하고 利子率과 利潤에 보다 큰 役割을 遂行토록 함.
1964	체코슬로바키아	個人企業에 대한 制限의 部分的 緩和
1964	東 独	計劃立案, 管理, 價格設定, 都壳 및 小壳價格의 改革, 企業의 利潤의 크기와 勞賃과를 聯関시키는 制度를 導入.
1964	불 가 리 아	利子率導入
1964 ~ 65	유고슬라비아	銀行機構의 改革
1964 ~ 65	소 련	企業의 成果를 利潤으로 評價하는 試驗的 試圖를 行함.
1965	체코슬로바키아	産業連合會에 보다 큰 權限을 委讓
1965	東 独	SNEC 를 廢止함. 企業의 獨立性的 擴大
1965	유고슬라비아	地方分權의 擴大. 財政 및 金融政策의 役割의 擴大, 對外貿易에 대한 政策上 配慮를 擴大함. 農業에 有利하도록 價格構造를 再編成
1965	항 가 리	農産物價格의 引上
1965	소 련	「利潤에 의한 企業評價」의 制度를 公式으로 認定. 企業과 農業체의 獨

年 度	国 名	經濟体制改革의 内容
		立性を強化. 그 反面에 地域經濟委員會 (Regional Econ. Council) 를 廢하고 中央의 經濟省 (Econ. Ministry) 으 로 이를 代替함.
1966	東 独	價格構造의 再改革
1966	항 가 리	計劃과 管理体制의 分權化를 크게 擴大, 各種 誘因制度의 改革
1966	포 랜 드	物質的 誘因 및 工場渡價格의 改革, 企業의 獨立採算制 強化, 輸出業체에 대한 보너스는 純外貨稼得額에 基準하여 支給토록 함.
1967	불 가 리 아	計劃 및 管理의 分權化擴大, 物質的 誘因의 強化, 金融手段의 強化, 生産者의 價格의 改革, 그 反面에 銀行制度를 改革하여 中央集中化를 強化함.
1967	체코슬로바키아	計劃 및 管理의 分權化擴大 價格制度에 伸縮性擴大. 經濟性 採算性에 대한 基準을 強化함.
1967	포 랜 드	工場價格을 改革함.
1967	루 마 니 아	企業의 部門別 連合會 (Branch Association) 를 設立

年 度	国 名	經濟体制改革의 内容
1967	소 련	生産者 價格의 改革, 農業에 있어서의 企業會計方式의 導入.
1967	유고스라비아	反덤핑關稅制를 設定.
1968	불 가 리 아	計劃 및 管理의 分權化, 經濟性 및 物質的誘因의 強化.
1968	체코스로바키아	第2段階 價格改革.
1968	항 가 리	價格制度의 伸縮性擴大. 農業에 있어서의 物質的 誘因의 擴大.
1968	東 独	銀行 및 信用機關의 改革, (多樣性的 增大, 伸縮的인 融資政策, 金融統制의 強化)
1968	항 가 리	伸縮的인 價格制度, 農業에 있어서의 物質的 誘因의 強化
1968 ~ 69	루 마 니 아	産業과 對外貿易에 있어서의 地方分權化 強化 物質的 誘因의 強化 및 金融의 強化, 銀行機構의 多樣性 增大.
1969	체코스로바키아	金融 및 信用制度의 改革
1969 ~ 70	東 独	産業價格의 改革
1969 ~ 70	포 랜 드	金融 및 信用制度의 改革
1969 ~ 70	소 련	土地使用의 合理化, 集團農場의 商業原則導入의 擴大

年 度	国 名	經濟体制改革의 内容
1970 ~ 71	루 마 니 아	生産者價格의 改革
1971	포 랜 드	生産者價格의 改革

以上の 年次的 改革의 沿革을 보면 알 수 있드시 東歐諸國의 經濟体制改革의 特徵을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는 經濟計劃과 執行의 分權化를 들 수 있다. 物量的, 命令的 計劃目標의 設定을 止揚하고 보다 伸縮性있고 広範圍한 指示的 計劃을 作成하는 것이 一般的 趨勢이다. 經濟計劃의 目標을 漸次 價值 乃至 價格으로 表示하고 있으며 計劃의 作成에는 地域連合會 (Regional Association) 와 企業所의 參與의 範圍를 擴大시키고 있다.

둘째는 企業의 獨立性強化를 들 수 있다. 計劃의 達成을 위하여 企業體는 여러가지의 意思決定을 보다 自由롭게 할 수 있도록 되었다. 經濟에 있어서의 上下關係는 적어지고 企業들의 橫的의 去來가 增加하게 되었다.

셋째는 利潤制度의 導入을 들 수 있다. 企業의 能率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企業成果를 評價하는 基準으로 利潤을 導入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는 勞動에 대한 物質的 誘因을 強化한 것을 들 수 있다. 元來는 道義的 倫理的 誘因이 共產國家의 誘因制度의 大部分이었던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에서 勞動의 質的 量的 成果에 따라 勞動者의

個人이나 集團에게 勞賃을 伸縮性있게 策定하게된 것이다.

다섯째로 價格에 대한 改革을 들 수 있다. 元來 東歐諸國에 있어서의 어떤 財貨의 價格은 그 財貨의 機會費用과는 別로 관계 없이 中央에 의하여 策定되었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차례에 걸친 改革으로 因하여 生産者의 價格은 生産費에 接近하도록 하여 國家에 의한 補助金의 支払을 止揚하도록 한 것이다. 또 過去에 있어서는 農産物의 價格이 工産物의 價格에 비하여 不當히 낮았었는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農産物의 價格을 引上하여 農業生産을 增加시키고 農村地域에 있어서의 生活水準의 向上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몇몇나라 (불가리아, 유고스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 있어서는 이른 바 伸縮的 價格을 導入하여 많은 價格이 需要 및 供給에 의하여 決定되도록 하였다.

여섯째로, 經濟体制의 改革은 金融과 信用에 대하여 보다 큰 役割을 遂行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企業은 過去에 비하여 會計를 精密히 하고 獨立採算制의 領域을 擴大하게 하고 利率을 導入하여 資本의 使用에 効率化를 期하도록 하였다. 또 過去에는 企業의 生産活動은 中央當局에 의한 強制와 命令에 의하여 하였었는데 이제와서는 製品의 價格, 利率의 策定, 信用 및 租稅등의 間接的인 手段으로 企業의 生産을 誘導하도록 改革한 나라가 많다.

Ⅲ. 經濟改革의 動機와 原因

前述한 바와 같이 東歐諸國의 經濟體制는 30年代의 소련의 스탈린體制를 그대로 模倣하였던 것이다. 이 體制의 特徵은 이미 잘 알려워져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體制는 經濟發展의 程度가 낮고 非常時的인 狀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能率을 期할 수 있지만 生産體制가 複雜해지고 製品이 多樣해짐에 따라서 命令과 物量的 計劃으로서는 도저히 能率的으로 經濟가 運營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反映한 것이 소련 및 東歐諸國의 國民所得의 成長率이다. 즉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國에 있어서의 成長率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8個國全體를 보면 1950年以後로 大略 3段階의 成長으로 区分될 수 있다. (1) 즉 第1段階는 1950年代의 末까지인데 全體의 年平均 成長率은 11%로 相當한 高率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1960年代上半期에는 그 成長率이 顯著하게 鈍化하여 1963년에는 4%를 나타냈다. 第3段階는 1960年代의 後半期인데 成長率은 比較的 回復하여 約 7%를 示顯하였다.

1950年代 後半期로 부터 1960年代 上半期에 걸쳐서 東歐諸國

註 1) 이들 數字는 公式發表에 의한 것이므로 完全한 信憑性은 없으나 大體的으로 傾向만큼은 충분히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表 1>

東欧諸国の 国民所得成長率, 1951~69

年	불가리아	체코슬로 바키아	東 独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 련	유고슬 라비아
1951	41	10		16	8		12	10
1952	- 1	10		- 2	6		11	- 8
1953	21	7	13①	12	10	14	9	12
1954	0	4		- 5	11		12	3
1955	5	11		8	8		12	13
1956	1	5		- 11	7	- 7	11	- 4
1957	13	7		23	11	16	7	23
1958	7	8	7①	6	6	4	12	3
1959	22	6		7	5	12	8	17
1960	7	8		9	4	11	8	6
1961	3	7	4	6	8	11	7	6
1962	6	1	2	5	2	4	6	4
1963	7	- 2	3	6	7	10	4	12
1964	10	1	5	5	7	12	9	13
1965	7	3	5	1	7	10	7	2
1966	11	10	6	8	7	8	8	9
1967	9	7	5	9	6	8	9	2
1968	6	8	5	5	9	7	8	5
1969②	8	6	5	5	3	7	5	9

1. 經常價格

2. 暫定數值

이 들 數值는 各政府의 公式發表에 의한것임.

出處. J. Wilczynski,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Macmillan, 1972, p.6. <表 2>

의 成長率이 鈍化하였다는 사실과 그 당시부터 經濟体制의 改革이 広範圍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은 서로 密接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共產圈 經濟의 專門家의 觀察에 의하면 소련式 經濟体制은 外延的 (extensive) 인 成長, 즉 다시 말하면 經濟內에 動員되지 않는 生産要素가 있는 경우 이것을 動員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成長의 達成에는 어느정도 效率的인 面이 있으나 經濟의 外延的 發展이 그 限界에 到達하는 生産 및 經營의 技術의 進歩와 效率의 增進으로 말미암은 成長, 즉 이른바 內延的 (intensive) 成長의 達成을 위해서는 매우 不適當한 制度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東歐諸國의 經濟体制改革은 外延的 成長으로 부터 內延的成長으로 移行하기 위한 不可避한 過程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仔細하게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950年代까지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國에 있어서의 雇傭의 增大와 資本蓄積의 增大는 括目할만한 것이었다.

첫째 勞動에 관해서 보면 總勞動의 雇傭이 增加하였을 뿐 아니라 婦女子들의 雇傭이 거의 極限的으로 이루어졌다. 西歐의 自由主義 先進國들의 婦女子의 雇傭이 總勞動人口의 25~30%인데 비하여 東歐諸國에는 이것이 45%乃至 50%가 된다. 뿐만 아니라 勞動의 時間도 資本主義國家에 비하여 길다. 또 勞動의 業種別 雇傭을 보면 이른바 非生産的 서비스 部門에 대한 雇傭은 적고 生産的이라고 認識되고 있는 製造業部門에 集中되고 있다. 西歐諸國에서는 서비스部門 (國防포함)에 從事하고 있는 勞動者數는 1960

年 初期에 있어서는 總勞動의 約 33%였음에 비하여 東歐諸國에 있어서는 겨우 15%에 不過하다. 특히 農業部門에 비하여 工業部門에 대한 雇傭이 增加한 것이 括目할만 하다. 즉 東歐諸國全體로 보아서 農業部門과 工業部門에 대한 雇傭은 1950년에는 各各 5千3百萬, 2千4百萬이던 것이 1968년에는 이것이 顛倒되어 各各 4千7百萬, 3千4百萬으로 된 것이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雇傭의 增加가 있느냐 하면 이 原因은 30年代 소련식 經濟體制 그 自体에 있다 할 것이다. 즉, 經濟의 效率을 따지지 않고 오직 量的인 目標達成위주로 計劃을 樹立 및 執行하기 때문에 이것이 各企業으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우선 量的인 目標達成에 置重하게 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可及的 많은 勞動力을 確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外延的 雇傭의 增加 原因이었다.

둘째, 資本에 대해서도 事情은 마찬가지다.

1950年代에는 東歐全域에 걸쳐서 큰 投資의 增加가 있었는데 投資의 增加率은 國民所得의 增加率을 크게 上回하는 것이었다.

(〈表2〉參照)

<表 2> 東欧諸國의 投資, 消費 및 國民所得의 增加指數,

1950 ~ 59

(1950=100)

國 名	投 資	消 費	國民所得
불 가 리 아	367	183	264
체코스로바키아	262	161	192
東 獨	414	160	242
헝 가 리	170	159	162
포 랜 드	244	n.a	199
루 마 니 아	336	n.a	199
소 련	307	173	246
유고스라비아	212	n.a	197

出處. J. Wilczynski, 前掲書, p.29

1950年代의 外延的成長當時의 資本蓄積에는 몇가지 特徵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이른 바 非生産的 投資에 비하여 生産的 投資에 集中되는 傾向이 있었고 이것은 특히 後進國(例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에 顯著하였다. 둘째, 資本蓄積은 특히 流動資本에 비하여 固定資本에 集中되는 現象이 顯著하였다. 流動資本보다도 固定資本의 蓄積이 經濟成長을 促進한다는 共產經濟理論의 表現이다. 셋째, 이와 같은 理由로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所謂 「資本의 技

術的 構造」⁽²⁾ (Technical Structure of Capital) 이 「低位」에 있었다. 大体的으로 共產主義經濟理論은 오직 勞動만이 生産的인 生産要素라고 信奉하는 까닭에 資本의 節約에 대한 觀念이 比較的 稀薄하며, 企業은 投資에 대한 決定權이 없고 中央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까닭에 效率성이 크게 減殺되는 傾向이 있다.

1960年代의 中期까지는 유고스라비아는 例外였지만 投資를 위하여 企業에 割當된 資本은 無料로 提供되었고 使用으로 말미암은 利子의 支払도 없었다. 따라서 目標達成을 至上目標로 하는 各企業들은 投資資本의 配當을 늘리기 위하여 不斷히 그 增加를 上部에 申請하는 버릇이 생겼든 것이다.

세 책, 土地도 역시 1960年代 中期까지는 外延的 成長을 위하여 아낌없이 投入되었다.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諸國에 있어서는 耕作面積은 크게 擴大되었다. 農耕地의 擴張은 勿論이었지만 工業의 敷地에 대해서도 土地는 不必要할 정도로 많이 投入되었든 것이다. 共產主義의 經濟理論에 의하면 土地는 自由財로 看做됨으로 이것을 效率的으로 按配한다는 觀念이 稀薄한 것이다.

註 2) 技術進步 및 經濟發展의 見地로 보면 資本중에서 가장 重要한 部分은 機械, 機器 其他의 裝備인바, 이것을 「能動的 資本」(active capital)이라 하고 建物을 「被動的資本」(passive capital)이라고 하는데 이 兩者의 比率을 資本의 技術的 構造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外延的成長을 追求하는 期間에 많은 效率的인 資源의 使用과 浪費가 惹起되었는데 이것은 情報疎通制度의 不備, 中央에 의한 目標設定, 誘因制度의 非現實性등에 緣由하였든 것으로써 이것은 各企業으로 하여금 恒常 그들의 生産設備의 生産能力을 過少報告하여 만든 것이다. 生産能力에 대한 過少報告를 하는 理由에는 두가지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資源을 補給받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生産目標의 配當을 적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 여하튼 이와 같은 制度가 經濟를 계속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制度下에서는 成長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重要資源에 대한 需要가 加速的으로 遞增하는데, 可用資源은 勿論 限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1960年代의 初期에 이르러서는 모든 東歐諸國 특히 開發의 程度가 높았던 체코슬로바키아, 東獨, 헝가리, 폴란드 및 소련에 있어서의 浪費와 沈滯는 매우 甚한 바 있었다. 이것은 非但 위에서 본 바와 같은 成長率의 鈍化에 있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成長을 上回하는 社会的費用의 增加, 均衡의 欠如, 生産品의 低質, 技術發展에 대한 無關心(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技術發展에 대한 反對) 등 難題가 重疊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浪費와 沈滯를 止揚하고 經濟性和 效率의 基盤위에서 經濟成長을 위한 새로운 活力을 불어 넣자는 것이 60年代에 있어서의 東歐諸國의 經濟體制改革의 動機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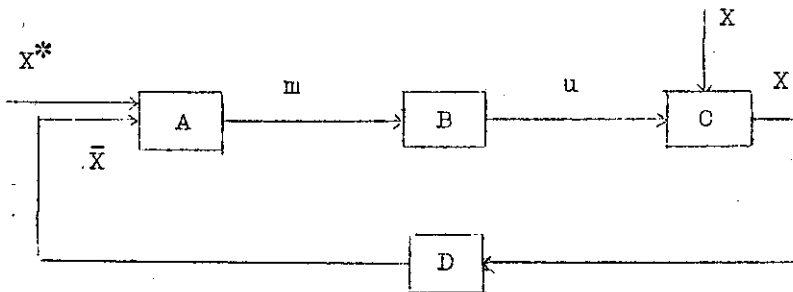
IV . 經濟改革의 理論과 現實

1 . 計劃과 管理 .

a) 東歐諸國의 經濟計劃과 管理의 모델

소련의 經濟計劃과 計劃執行의 管理制度는 어떤 制度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記述한다는 것은 到底히 不可能하나 그 特徵을 浮刻시키기 위하여, 最近에 발달된 「사이바네틱」 모델의 一種을 利用하여 說明해 보기로 한다. 그 모델은 <圖-1>과 같다. 3)

<圖-1>



이 모델에 있어서는 어떤 工場 (C)의 成果는 컴퓨터 (A), 実行機關 (B), 및 監督機關 (D)에 의하여 「컨트롤」된다. 콘트

註3. Nicolas Spulber, Socialist Management and Planning, Indiana U. Press, Bloomington, 1971, Pp.5.-8.

물의 對象이 되는 것은 C의 生産인 X이다.

C의 의한 X의 生産은 A의 命令에 의하여 그 目標(X^*)가 定해진다. B는 C에게 生産要素(u)를 供給해 준다. I는 C의 生産의 成果를 評價하고 그것에 대한 報告(\bar{X})를 A에게 한다. A는 \bar{X} 를 X^* 와 比較하여 다시 修正한 命令(m)을 B에게 내린다. B에 대한 A의 命令은 \bar{X} 를 X^* 에게 可及的 接近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이바네틱 모델은 이른바 社會主義經濟計劃과 管理制度를 잘 說明해 주는 것이다. 그림에서

A = 中央計劃當局

B = 計劃을 執行하는 機關, 예를 들어 各産業省, 및 그 下部 機關

C = 各企業所

I = 下部計劃委員會, 統計機關, 監查機關, 銀行 등.

을 指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東歐經濟計劃과 執行에 있어서 A(中央計劃當局)는 各産業省에게 計劃의 目標을 下達하면 各産業省은 이것을 各企業所에게 伝達하고 그 生産을 위한 生産要素를 配當한다. 各企業所는 上部에서 作業된 基準에 의하여 生産要素를 供給받아서 生産을 한다. 各企業所의 生産은 여러가지의 機關(評價, 監查, 統計機關等)에 의하여 檢討한다. 이들은 이러한 資料를 中央計劃當局에 伝達한다. 中央計劃當局은 이와 같은 資料에 立脚하여 企業所의 生産結果를 元來의 計劃目標과 比較하여

다시 修正된 目標을 下部로 傳達한다.

이와 같은 모델의 運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簡單히 그리고 원할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 實際에 있어서는 經濟는 결코 機械的으로 이 모델이 움직이듯이 원할히 움직이지는 않는다.

統制는 生産制度의 모든 部分에 이르기까지 擴大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生産自体가 이루어질 길이 없고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生産의 量과 質, 그리고 構成은 결코 中央當局이 바라는 바와 같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리하여 이 制度의 效果는 모두가 여러가지 點에서 많은 缺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各産業省과 各企業所와의 關係는 항상 원할하지 못한 때가 많고 \bar{X} 와 X^* 와의 乖離는 점점 늘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bar{X} 와 X^* 사이의 距離를 좁히기 위한 努力은 많은 경우에 水泡로 돌아가고 더 큰 乖離를 낳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새로운 目標가 設立되어야 하고 各産業省은 再編成되어야 하고 監査, 監督, 評價機關도 역시 再組織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結局 이 制度의 모든 側面에 있어서 非市場的 統制로부터 市場機能의 導入이 自然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列挙한 바와 같은 東歐諸國의 經濟改革으로 나타난 것이다. 東歐諸國의 經濟計劃과 그 執行上의 改革의 基調는 大略 다음과 같다.

(b) 소련

1950年代의 후루시초프 執權當時에는 全國을 統括하는省 대신에 各地域別로 監督機關이 設立되었다가 후루시초프失脚後, 省機關은 다시 復活되었었다. 그러나 兩制度는 서로 共通點이 있었다.

省制度에 있어서도 各産業分野의 組織原則에 따라 各省과 計劃委員會內에서는 地域에 따른 部署가 있었고, 各地域委員會 (Sovnar-khozy) 制度에 있어서도 各計劃委員會는 前의 各省의 役割을 遂行하는 경우도 많았다. 省制度下에서는 各省의 活動에 많은 重複을 가지고 오게하였고 地域委員會制度下에서는 中央政府의 意圖가 各地域의 生産活動에 제대로 反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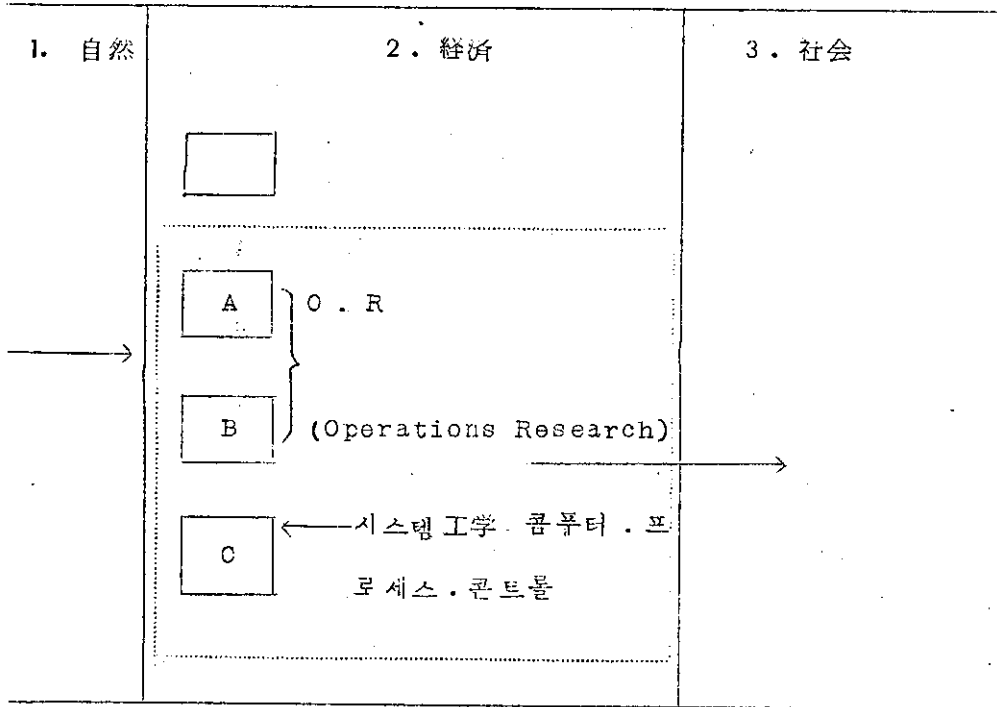
여러번에 걸친 改革으로 말미암아 中央의 指示도 그 크기, 複雜性, 具體性 등에 있어서 크게 緩和되었다. 또 前에는 各企業所의 總生産量이 企業의 生産成果의 標準이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企業의 「利潤」이 그 成果의 標準이 되었다.

소련에 있어서의 經濟計劃의 새로운 潮流 이것은 다른 東歐 諸國에 있어서도 그렇다 는 이른바, ① 「最適計劃」 (Optimal Planning) 과 ② 「最適시스템裝置」 (Optimal System design) 의 創案이다. 過去에는 最適 (Optimal) 이라는 概念은 없었다.

다만 物産的인 生産만을 爲主로 하는 것이 었다. 첫째, 最適計劃은 主로 數理經濟學과 컴퓨터의 利用을 통하여 經濟에 있어서의 資源使用의 効率的方案을 講究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主로 소련科學院中央經濟數學研究院에 있는 數理經濟學者들의 研究結果이다.

이에 비하여 最適시스템裝置를 마련하고자 하는 學者들은 위의 最適計劃보다도 훨씬 더 野心的인 構想을 하고 있다. 이들은 全經濟의 最適 運行패턴, 그리고 심지어는 巨視社会시스템 (Social macro-system)의 最適運行패턴에 대한 시스템을 考案한다는 것이다. 그 一例를 들면 그 巨視社会 시스템, 다시 말하면 一國의 經濟社会는 <圖-2>에 보듯이 세계의 部分, 즉 自然, 經濟, 社会의 部分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바, 自然은 資源과 環境을 의미하며, 經濟는 資源의 所有主를 指稱하고 그리고 社会는 마르크스理論에 立脚하여 「生産方式」에 의하여 形成되는 社会的諸關係를 指稱한다. 그리하여 이들 部分들이 調和있게 運行되도록 最適 콘트롤 시스템을 案出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소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數理分析에 의한 計劃의 모델이 活潑하게 案出되는 過程에 있으나, 이것은 數理分析이 本然的으로 지니고 있는 制約과 아울러 여러가지 데이터 (data)의 未備, 例를 들면 仙格의 非合理性, 經濟制度의 非合理性으로 因하여 큰 實効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圖 2〉 巨視 社会시스템¹⁾ (The Social Macro - System)



註 1. 이 그림은 一部 소련經濟數學者들이 全社会를 自然, 經濟, 社会로 나누어서 이들 部分의 相互關係 속에서 經濟가 最適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O. R 手法으로 中央計劃 (A) 과 各 産業省 (B) 에 관한 計劃을 하고 시스템工學의 手法을 써서 企業所 (C) 의 運行計劃을 하고자 構造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內가 즉 最適計劃에 該當한다.

出處. N. Spulber, 前掲書. P. 13.

(c) 기타 東歐諸國

거의 모든 東歐諸國에 있어서도 이와 類似한 經濟計劃上の 改革이 있었다. 우선 「對座計劃」(Counter planning)이라고 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一方的으로 示達되는 計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計劃이 올라가서 이것이 綜合되고 參考되는 制度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또 「水平計劃」(Horizontal planning)이라고 해서 企業所 사이의 契約을 許容할 뿐 아니라 이것이 獎勵되고 이것이 計劃의 土台로 되기도 한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는 年次 計劃을 廢止하였고 특히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는 強制的 目標設定은 完全히 廢棄되었으며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이것은 顯著히 減少하였다.

또 모든 나라에 있어서 硬直性이 減少하고 伸縮性이 增加하도록 計劃되었다. 특히 消費財의 경우에 그렇게 되었고 計劃은 物量的인 數値를 止揚하고 金額으로 표시되게 되었다.

또 計劃에 있어서 한가지 括目할만한 것이 構造改革計劃이다.

過去에는 計劃은 産業別로 되어 있었는데 이 計劃은 各産業이 서로 偏狹한 小乘的利益만을 옹호하려고 하는 戒단이 있었다. 좀 더 넓은 테두리 속에서 産業間의 均衡, 近代化, 特化 專門化 協同 및 研究 등에 관한 調整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計劃이다. 이 構造計劃은 東獨, 체코슬로바키아, 포렌드, 루마니아 등 諸國에서 施行되고 있다.

計劃自体 뿐만 아니라, 計劃의 執行에 있어서도 여러가지의 下

部分權이 이루어졌다. 上部의 權限이 中間機關이나 企業所로 많이 移管되었다. 또 企業所의 自律性이 強化되었다. 中間機關의 權限은 東獨, 포랜드, 루마니아 체코스로바키아 및 헝가리에서 크게 強化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投資의 按配, 賃金이나 價格의 策定 등의 權限은 中央이 가지고 있다.

2. 價格改革.

a) 社會主義의 價格理論

위에서 概觀한 바와 같은 經濟計劃體制 改革은 結局 한마디로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主要按配媒介體인 價格制度를 導入하여 이것을 利用하자는데 그 주안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련式 經濟體制의 여러가지 盲點은 결국 價格메카니즘이 제대로 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乃至 社會主義體制에 있어서의 價格에 대한 理論을 考察해 보자.

우선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 價格이 果然 얼마만큼의 本然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가에 관한 理論부터 좀 考察해 볼 필요가 있다. 元來 Ludwig von Mises 나 Friedrich von Hayek 같은 學者들은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는 經濟의 合理的運營은 不可能하다고 主張한데 대하여 Oskar Lange 같은 學者는 社會主義社會에는 비록 古典經濟理論에 있어서의 「完全競爭」모델의 成立을 위한 客

觀的條件이 없는 事態에 있기는 하나 價格과 限界費用과의 均等化 그 自体를 制度上的 準則 (Rule) 으로서 妥當한 것으로 만들어서 모든 企業으로 하여금 그 準則에 順應하도록 하는 것도 理論上 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闡明하였다. 4) 즉 Lange가 提 案한 바에 의하면 中央計劃當局이 價格을 定해놓고 企業체의 管理 人은 마치 純粹競爭下의 企業家와 같이 이들 公定價格을 基準으로 하여 모든 經濟의 計算을 行하여 價格이 限界費用과 같아질때까지 生産을 行하게 하며 또 價格以外에도 中央計劃當局은 完全競爭均衡 의 諸條件에 對應하는 準則을 마련하여 企業으로 하여금 이들 準 則을 지키면서 行動할 것을 命令한다. 그 結果로 만일에 어떤 財貨의 市場에서 需給의 不一致가 생기는 경우에는 計劃當局은 마 치 競爭市場에 있어서와 같은 公正價格을 調整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Lange는 政府가 定하는 公定價格은 競爭市場에 있어서 의 價格과 같이 純全한 trial-and-error의 方法을 反覆함으로 써, 資源의 按配를 最適化할 수 있는 價格으로 만들 수 있다고 主張한 바 있다.

註4. Oskar Lange,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36-37, Reprinted in Lippencott. (ed.),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cGraw-Hill, 1938.

b) 東歐諸國의 價格理論과 그 改革의 基調.

以上과 같은 Lange의 理論은 실지로 價格의 인센티브로서의 機能을 無視하고 매우 靜態的인 側面만을 考慮한 것이므로 現實性 있는 理論은 못된다. 그러나 이 理論은 아마 近代經濟學의 立場으로 볼 때에도 論理的 理論的인 妥當性이 있는 社會主義의 價格理論의 唯一한 理論일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國의 價格에 관한 理論은 Lange 등이 提唱한 機會費用을 反映하는 價格이 아니라, 傳統的인 마르크스 理論에 立脚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價值論에 있어서는 商品의 實際의 價值는 그것이 市場에서 決定되는 경우에 있어서나 行政的으로 決定되는 경우를 莫論하고 長期的인 正常的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內在하는 現在 및 過去의 社會的 必要勞動量의 總和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價值論에 의하면 商品의 價值는 다음의 3가지 部分으로 構成된다. 즉 2세가지 部分이란 (1) 그 商品의 生産을 위하여 使用된 原料 및 生産設備의 一定比率(減價償却費로 測定된다)에 內在하는 過去의 勞動의 價值, (2) 勞動者가 賃金의 形式으로 報酬를 받는 現在의 勞動의 價值, (3) 勞動者가 報酬를 받지 않은 現在의 勞動의 價值(즉 剩餘價值)가 이것이다.

이리하여 마르크스의 定義에 있어서는 이들 價值의 構成部分은

各各 恒久資本 (C), 可變資本 (V), 및 剩餘価値로 構成된다. 5)

$$\text{즉 価値} = c + v + m, \dots\dots\dots (1)$$

이 된다.

소련 및 東歐諸國의 價格은 基本的으로는 이 理論에 立脚하고 있는 것은 勿論이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1)式에서 C+V 는 소련 및 東歐諸國에서는 生産原価로 看做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總利潤과 去來稅(Turn over Tax) 와의 合計를 總剩餘 生産物로 看做하여 이것이 生産價格으로 看做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

(따라서 總利潤과 去來稅의 合計가 剩餘価値^(m)에 該當한다). 그런데 (1)式에서의 M은 C+V의 어떤 比率(%)로 計算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1)式은 結局 生産價格 = $c + v + m = c + v + k(c + v) = (c + v)(1 + k) \dots\dots\dots (2)$

로 된다. 따라서 K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生産價格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註5. 마르크스의 資本論 參照, 特히 第3部 第9章 「剩餘価値率」 參照.

註6. Joint Economic Committee, U.S. Congress, New Directions in the Soviet Economy, Washington, D.C. 1966. 日訳書. 連經濟の新らしい方向, (時事通信社), 1967.PP.141-142. 參照
J. Wilczynski, 前掲書, P.79. 脚註2. 參照.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주로 세가지가 있는 것 같다.

첫째, k 가 지금까지는 大体的으로 너무 낮게 策定되어 있다고 하는 批判의 소리가 높다. k 가 너무 낮으므로 生産財가 全体的으로 그 「 μ 」보다 적은 價格이 대겨져 있다는 뜻이 된다.

이리하여 生産財의 價格이 그 μ 를 충분히 反映하고 있지 않으므로써 計劃担当者나 企業管理者가 어떤 選擇을 하는 경우에 信賴할 수 없는 指標에 의하지 않을 수 없게되며 相對的 價格이 正當하지 않게된다. 相對的 價格이 正當하지 않으면 代替可能한 生産要素의 投入 및 產出에 대하여 正當하지 못한 選擇이 行하여지는 結果를 招來한다. 즉 좀 더 具體적으로 소련과 東歐諸國의 一般的 傾向을 보면 生産財가 消費財에 비하여 낮게 價格이 策定되고 있는 까닭에 生産費의 計算에 있어 原料와 機械가 勞動에 비하여 낮게 評價되어 있어서 그 結果 原料와 機械가 勞動대신으로 不當하게 代替되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價格改革중의 重要한 事項은 여러가지 資本 集約的인 製品 (주로 重工業製品)의 價格을 올리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67年의 소련의 價格改革은 化学工業製品 價格을 5%, 시멘트 13%, 金屬製品 43%, 石炭 78%, 石油 230%씩 增加하였고, 其他의 東歐國家에 있어서도 1964-67年의 價格改革으로 여러가지 生産財의 價格을 平均 70% 上昇시켰는 것이다.

둘째, 위에서 말한 $C+V$ 에서 C 에 대하여는 當然히 地代가 포

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理論에서는 地代는 原
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結果로 주로 土
地의 生産物의 價格이 낮게 策定되어 있는 傾向이 많다. 이와
같은 農産物價格의 過小策定은 結局 農業生産의 沈滯를 招來하고
이것이 1960年初의 農産物不足의 渦中에도 食糧을 飼料로 使用하
는 非能率的인 事態를 惹起시켰으며 全体的으로 東歐諸國의 原料
및 1次産品 輸出을 沮害시켰는 것이다.

그러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50年 初以來로 各國에서
農産物價格을 大幅引上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헝가리에서
는 1966-68年 동안에 農産物價格을 17% 引上 (工産品은 平均
7.8% 引上) 시켰고, 유고슬라비아는 1965年의 價格改革으로 農産
物 都売價格을 33% 引上 (工産品價格의 引上은 13%) 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工産品中의 生産財價格을 增加시키고 農産物 및 其他
1次産品の 價格을 增加시킨 것은 여러가지 形態의 政府補助를 減
少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大体的으로 資源의 効率的인 使用
에 相當히 이바지 한 것으로 分析된다.

또 東歐諸國의 價格改革中에서 看過할 수 없는 事項은 價格의
自由化政策이다. 東歐諸國에는 價格은 大体的으로 固定價格, 統制價

格, 7) 및 自由價格의 세가지가 있는 바, 여러나라에서 固定價格을 統制乃至 自由價格으로 轉換시킨 것이다. 一例를 체코스로바키아의 경우 (1969年) 를 들면 <表3>이 보여주고 있듯이 固定價格의 數는 大幅줄고 自由價格의 數는 크게 增加한 것이다. 8)

이와 같은 現象은 거의 모든 다른 東歐國家에서도 볼 수 있다.

例를 들어 헝가리에 있어서도 1968年에 價格制度의 伸縮化로 去來된 原料와 半製品의 總額中에서 固定價格으로 去來된 것이 約 30%, 最高乃至 最低價格으로 去來된 것이 40%, 그리고 自由價格이 30%여서 過去보다는 훨씬더 伸縮性이 增加되었고 最終生産品의 生産者價格의 固定, 統制 및 自由價格은 各各 3%, 19%,

<表-3> 價格의 類型, (체코스로바키아) (總販賣額中에 차지하는%)

	1968年末			1969年末(予想値)		
	固定價格	統制價格	自由價格	固定價格	統制價格	自由價格
都 売	16	80	4	15	40	45
小 売						
食料品	72	-	28	63	-	36
工產品	82	-	18	25	33	42

註7. 여기서 統制價格이란 어떤 價格群中에서 價格指數의 上下限을 政府가 定해놓고 그 上下限度內에서 企業은 各價格을 自由로 히 調整할 수 있는 價格을 말한다.

註8. Oldrich Kyn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Reform in Czechoslovakia",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0, PP.300 ~ 306 參照.

및 78 % 였으며 消費財價格에 있어서는 20 %, 57 % 및 23 % 였다.

3. 其他

東歐諸國의 其他의 經濟改革은 모두위에서 본 計劃 및 執行에 있어서의 改革과 價格制度의 改革에 準하는 것이며 大體的인 概觀은 이미 한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簡略하게 그 大要를 훑어 보기로 한다.

a) 企業의 運營

過去에는 生産量의 達成을 위주로 企業을 運營하였던 것이 이제는 利潤의 크기를 相當히 重要視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物質的인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方向으로 企業의 運營을 構想하고 있다. 그러나 유고스라비아를 除外하고는 아직도 物質的인 인센티브以外的 要素가 크게 作用하고 있다. 例를 들면 總生産額이라는가 또는 最小產出量같은 것이 企業의 成果를 評價하는 基準이 되고 있는것이다.

b) 勞動에 대한 物質的誘因

元來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物質的 誘因보다는 非物質的 誘因을 더 尊重히 여겨왔다. 非物質的 誘因이란, 政治的 道義的인 誘因으로서 勞動者들의 矜持愛國心등을 鼓吹하므로써 成就의 動機를 부

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誘因은 物質的誘因에 비하여 크게 不足하다는 것이 經驗上으로 判明되었다. 그리하여 企業에 대하여 利潤을 強調함과 아울러, 物質的誘因은 지금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競争」을 위하여 必須不可缺의 것으로 認識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物質的誘因으로 因한 所得은 個人所得의 20-33%에 達하고 있다. 企業의 利潤중의 一部分이 「物質的誘因基金」으로 또는 「社會文化的 基金」「信託基金」으로 積立되어 勞動者들에 대한 褒賞用으로 사용되고 있다.

c) 技術發展

소련 및 東歐諸國의 體制는 技術發展을 위하여 매우 不利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東歐諸國의 技術水準은 西歐諸國에 비하여 크게 落後된 상태에 있다.

西歐諸國에 있어서는 總生産의 增加의 約 1/2은 技術의 增加에 의한 것인데 비하여 共產國에 있어서는 이것이 1/4에 不過하였다.

또 소련經濟에 있어서의 資本蓄積率은 美國의 그것의 約3배나 되는데도 不拘하고 生産性은 美國의 그것의 約 40%에 不過하다.

그리하여 東歐諸國에 있어서는 ① 電化의 促進 ② 化學工業의 開發, ③ 機械 및 機器 ④ 自動化的 推進, ⑤ 機械化的 促進, ⑥ 生産프로세스의 完全化등이 技術進步의 要件으로 看做하고 많은 技術者를 養成하여, 最近에 와서는 東歐 8.個國에 있어서의 科學技術

者는 世界의 1/3 에 達하고 있다. 最近에 와서는 企業의 利潤 制度의 채택으로 技術開發의 展望이 比較적 好轉된 感이 있다.

d) 對外貿易

元來 共產諸國의 對外貿易은 完全한 國家의 統制下에 있었다.

輸入은 機械와 裝備에 局限되고 있고 輸出은 輸入을 하기 위한 犧牲으로 看做되고 있었으며 거의 全体가 一次產品으로 構成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貿易패턴은 한편으로는 共產諸國이 經濟的後進國으로 因하여, 또 한편으로는 共產國家의 物量的 經濟計劃體制와 自給自足 經濟建設目標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隨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經濟計劃體制에 있어서의 非能率과 自給自足の 追求의 非現實性 및 交易條件의 惡化등으로 말미암아 東歐諸國은 점차 既存 體制를 改革하고 對外貿易에 注力하게 되었다. 1950年代 後半부 터 東歐諸國相互間의 交易을 增大시키기 위한 制度가 多角的으로 이루어져서 各國은 各各 國際間의 合意에 의한 專門化를 推進하였다. 이리하여 불가리아는 非鐵金屬, 체코스로바키아는 石炭, 東獨은 포타 지음鹽, 과 石炭, 헝가리는 목사이드 및 蘋果, 폴랜드는 石炭, 金屬 코르크 및 硫黃, 루마니아는 自然가스, 망강鉍 및 原木, 소련은 이들 原料의 大部分을 東歐의 同盟國에 供給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0年까지는 東歐諸國은 工業을 위한 機械와 裝

備에 있어서도 2,300種의 機械類, 2,300種의 바아링, 3,000種의 化學製品에 대하여 相互 專門化할 것이 約定되었다. 이와 같은 努力을 反映하여 1960年代 後半期에 있어서까지 東歐諸國의 機械 및 裝備의 95%는 國內 및 東歐國相互間의 交換으로 調達됨에 이른다.

이와 같이 東歐諸國 相互間의 交易이 增加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같이 하여 東歐諸國은 資本主義國家들과의 交易도 推進하여 1960年以後로 東西貿易은 東歐諸國相互間의 貿易을 駕하는 率로 增加하였다. 여기서 이 增加의 전모를 다 叙述할 수 없으나 東西貿易은 어떤 指標로 보든지 매우 括目할만한 速度로 進展되고 있다.

이와 같은 東西貿易의 發展의 表面에는 東歐諸國에 있어서의 여러가지의 體制改革이 있다는 것을 注目하여야 한다.

첫째, 對外貿易에 대한 計劃 역시 過去에는 物量的으로 여러產品의 細目에 이르기까지 指定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보다 넓은 商品類別로 策定되고 있다.

둘째, 過去에는 貿易의 計劃과 執行은 貿易省에 의하여 嚴格히 統制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貿易의 組織과 管理에 있어서 貿易商社에게 많은 權限이 移讓되었으며, 生産과 貿易과의 사이에 더 有機的인 關係가 있도록 되었다. 過去에는 貿易省만이 貿易에 關한 全權이 있던 것이 이제는 貿易과는 直接的으로 聯關이 없는 各企

業所나 其他 各 機關까지도 貿易計劃의 立案과 그 執行에 参与하도록 許容된 것이다.

또 過去에는 東歐諸國의 貿易은 主로 兩國間의 交易 (bilateral trade)의 原則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좀 더 多國間의 交易 (Multilateral trade)의 方向으로 徐徐히 改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成果는 그리 크지 못한 것 같다. 그 理由는 첫째, 東歐諸國의 他格體系가 아직 合理的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點과 둘째, 東歐諸國의 貨幣의 交換性 (Convertibility)이 確立되지 못하여 심지어 소련의 「루블」貨도 世界의 硬貨 (hard currency)와 自由로히 交換될 수 없는 까닭이다.

V. 将来에 對한 展望

東歐諸國에 있어서의 經濟體制의 改革은 그들의 硬直的인 計劃 및 그 執行體制와 非合理的인 價格制度가 經濟發展을 阻害함으로 因한 不得已한 政策의 變更의 結果였다고 볼 수 있으며 決코 資本主義的인 制度가 優越하다는 것을 認定한 結果라고 볼 수 없다.

經濟制度의 改革은 아무리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共產黨의 經濟的 支配를 拋棄시킬 程度로는 될 수 없다.

아직도 總體的인 投資와 資源의 按配는 中央計劃委員會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은 變更되지 않을 것이다.

價格制度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이 改革되었다고는 하나 需要와 供給의 市場原則이 確實히 認定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 共產主義의 價格理論은 그 自体가 마르크스主義的인 「生産 發 價值論」(Cost of production theory of value)에 立脚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合理化된다고 하더라도 市場原則에 의한 價格의 成立과는 理論적으로 距離가 있다. 要는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價格은 財貨의 機會費用(Opportunity Cost)를 反映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企業의 運營을 合理化하고 勞動者에게 物資的誘因을 賦與한다는 것은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生産性을 높히는데 相當히 有效한 것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도 價格의 合理化에 관한 制約, 私 有財產認定의 限度 등으로 眞實한 效果를 期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東歐諸國의 技術進步의 制約은 그다지 쉽게 緩和되지 않을 것이다. 그 理由는 역시 研究에 있어서나 研究結果의 適用에 있어서나 自由經濟에 있어서의 企業의 危險負擔 (risk-taking)의 原則은 到底히 広範圍하게 容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東歐諸國의 經濟體制의 限度에는 상당한 限界가 있다. 그 限界가 얼마나 될 것인가?

筆者의 私見에 의하면 經濟改革은 앞으로 위에서 簡略하게 한 程度에서 크게 進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量的으로는 위에서 敘述한 方向에 따라서 더욱 推 進될 것이지만 質的으로 私 有財產의 大幅擴大容認, 企業의 私 有化, 西歐에 있어서와 같은 完全한 指示的 計劃 (indicative planning) 制度으로의 轉換은 이부워지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東歐諸國은 위에서 말한 制度改革의 成集가 既存의 非效率을 어 느정도 緩和하면 그것으로 滿足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도 많은 非能率과 바람직하지 못한 經濟的現象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기를 잊지 않고 있으며 理論的으로는 資本主義社會體制의 基本的側面을 否認하는 것은 過去에 있어서나 지금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参 考 文 献

-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70.
- _____,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East - West Trade, Macmillan, London, 1969.
- _____,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Macmillan, London, 1972.
- Nicolas Spulber, Socialist Management and Planning, Indiana U. Press, Bloomington, 1971.
- _____, Soviet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Indiana U. Press. Bloomington, 1970.
- _____, Soviet Planning and Spatial Efficiency, Indiana U. Press. Bloomington, 1970.
- Robert W. Campbell, Soviet Economic Power, Its Organization, Growth and Challenge, Macmillan, London, 1959.
- Oskar Lange, Papers in Economics and Sociology 1930 - 1960, Pergamon Press, Oxford, 1970.
- K. Marx, Capital Modern Library Edition.
- Oldrnchyn,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Reform in Czechoslovakia",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0.
- R. D. Portes, "Economic Reforms in Hunga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0.
- Gregory Grossman, "Innovation and Information in the Soviet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6.

- Egon Neuberger, "Liberianism, Computopia, and Visible Hand: The Question of Informational 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6.
- D. Gale Johnson, "The Environment for Technical Change in Soviet Agricultur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6.
- Joseph S. Berliner, "The Static Efficiency of the Soviet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4.
- Bela Balassa, "The Dynamic Efficiency of the Soviet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4.
- Egon Neuberger,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CEMA: Limited Regret Strateg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4.
- J. M. 몬티애스; "東歐의 經濟改革" 東西經濟, 1972.7.8 月号
アメリカ 議会合同經濟委員會 報告, ソ連經濟の新しり方向, 時事通信社,
東京 1967.
- 内海義夫編著, ソ連經濟論, 理論篇, 日本評論社, 東京, 1967.